고졸 여성은 대통령 부인 될 수 없나요

에스프레소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설난영 비하' 논란 이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결혼 사연을 접하게 됐다. 지난 31일 강원도 속초에서 열린 김문수 후보의 합동 유세 연설을 통해서다. 그는 "예식장도 빌리지 못해 조그마한 교회 교육관에서 결혼"했는데, "밥 먹을 돈도 없어서 노조 같이 하는 사람들 국수 한 그릇도 못 줬다"고 했다. 신부는 웨딩드레스 대신 연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식을 올렸다. 하객석을 채운 건 이들을 감시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들이었다. 이런 걸 보면 "부부 관계는 돈·학벌·지위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그의 말이 빈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결혼 정보 업체 상담은 유튜브에서 잘 팔리는 콘텐츠 중 하나다. 내용은 뻔하다. 대부분 "여자는 무조건 어려야 한다"든지 "남자는 연봉이 최소 얼마여야 한다"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사람들은 자신보다 못한 스펙을 가진 출연자의 결혼 도전기에 응원을 보내면서 내심 위안을 찾거나, 맞선 상대에게 터무니없이 높은 조건을 요구하는 출연자를 돌팔매질한다. 남자든 여자든 조건에 집착하는 사람은 공분을 사기에 딱 좋다. 인터넷 게시판에는 관련 영상이 끊임없이 소환된다. 가뜩이나 삶도 팍팍한데 이보다 화풀이하기 좋은 상대는 없다.

포털 사이트에 '결혼 정보 업체'를 검색하면 '등급표'라는 연관 검색어가 따라붙는다. 배우자를 찾는 개인은 외모·직업·연봉 등에 따라 한우처럼 등급이 매겨진다. 우리 사회는 알게 모르게 이런 기준들을 수용하고 있다. 고졸 노동자 여성은 대통령 부인감이 아니라는 혐오 발언이 공공연히 전파를 타는 시대다. 자기 배우자, 혹은 자녀의 배우자를 향한 평가의 잣대는 얼마나 까다로울 것인가. 여기서 진심이나

'육각형 인간' 요구하는 결혼 시장
외모·학력·재산 등 하한선 그어
凡人들은 지레 겁먹고 결혼 포기
'등급' 문화, 청년들 결혼하겠나

사랑을 찾으면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 취급 받기 쉽다.

결혼 시장은 젊은 남녀에게 '육각형 인간'이 되길 요구한다. '육각형 인간'이란 여러 방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을 갖춘 사람을 의미한다. 결혼에는 외모, 키, 학력, 재산, 연봉, 부모 노후 준비 여부 등의 기준이 있다. 당장 직장인 커뮤니티 사이트만 보더라도 배우자 조건의 하한선을 나열한 글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한두 가지 조건을 충족할 순 있겠다. 그런데 그 교집합에 들어가기란 대단히 어렵다. 기준이 워낙 높아지니 범인(凡人)들은 지레 겁먹고 결혼을 포기한다.

지난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및 1분기 인구 동향'에 따르면 결혼과 출산은 다소 증가한 걸로 나타났다. 1분기 혼인 건수는 5만8704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8.4% 늘었다. 출생아 수 역시 6만502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51명(7.4%) 많았다. 기쁜 일인 건 분명한데, 샴페인을 터뜨리기엔 아직 이르다. 한동안 내리막길만 걷다가 이제 겨우 반등한 정도다. 게다가 현재 결혼 적령기에 있는 30대들은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이다. 한 해에 70만명 안팎이 태어났다. 사람 수가 많으니, 결혼과 출산 건수가 느는 건 당연한 일이다. 반면 20대 초반 이하는 나이마다 50만명을 넘지 않는다. 이들이 본격적으로 결혼·출산할 때가 '진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혼인 중 출산이 약 95%를 차지한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일단 결혼부터 하게 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각 당의 대선 공약처럼 스드메(스튜디오 촬영·웨딩드레스·메이크업) 견적을 투명화하거나 신혼부부 월세를 지원하면 혼인 건수를 유의미하게 늘릴 수 있을까? 사실 비용은 결혼을 꺼리는 여러 이유 중 하나일 뿐이다. '결혼은 현실'이라며 학력·직업으로 사람 등급을 매기는 문화, '육각형 인간'이 아니면 박탈감 느끼게 하는 사회 분위기를 바꾸지 않는다면, 나랏돈으로 호텔 결혼식을 지원한다고 한들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하진 못할 것 같다.

우정아의 아트 스토리 [584]

작가가 수프 끓여 대접하는 전시회

1996년 프랑스 디종의 현대 미술관 르콩소시옹에서 태국 출신 미술가 리크릿 티라바닛(Rikrit Tiravanija·1961~)의 개인전이 열렸다. 하지만 전시장 한가운데를 차지한 건 흔히 생각하는 '미술품'이 아니라 간이 부엌과 식탁이었다. 개막하는 날, 작가는 거기서 관람객들에게 따뜻한 수프를 끓여 대접했다. 그 이후로는 전시 기간 내내 방문객들이 스스로 수프를 끓여서 먹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누가 먼저 왔고, 누가 나중에 왔는지, 누가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미술관을 찾은 이들은 누구든 자유롭게 식탁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책을 읽다가, 차를 우려 마시기도 하고, 매트에 눕거나, 따로 마련된 연습실에서 기타를 치며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전시장에는 인공 조명 대신 그저 햇빛이 들어올 뿐이었다. 덕분에 언제 하루가 끝나는지는 자연스럽게 알 수 있었다.

그렇다고 '미술품'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다. 티라바닛은 르콩소시옹에서 소장하고 있던 다른 미술가들의 작품을 군데군데에 그야말로 장식품처럼 놔뒀다. 하지만 그는 예술이 무엇을 보여주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술이 과연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의 작품은 따뜻한 음식을 나눠 먹으며 대화하고, 편하게 몸을 뉠 자리를 내주고, 악기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등의 소소한 일상 가운데서 여럿이 함께 하는 공동체에 대한 본능적인 소망을 되새기게 해줬다.

리크릿 티라바닛, 무제(분당 한 번의 회전), 1996년, 프랑스 디종 르콩소시옹에서의 개인전 장면.

티라바닛은 공간을 만들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은 평범한 하루를 살아내며 소비가 아닌 협업을, 관람이 아닌 참여를, 침묵이 아닌 대화를 통해 작품의 일부가 된 셈이다. 오늘은 대통령 선거일이다. 투표란 결국 누구를 선택하든 모두가 같은 공간에서 함께 대화할 수 있다는 믿음을 나누는 일이다.

포스텍 교수·서양미술사

社 說

오늘 대통령 선거, 갈등에서 통합으로 넘어가길

오늘은 제21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날이다. 이번 대선은 느닷없는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졌다. 지난 6개월간 국민은 혼란을 겪어야 했다. 사전 투표율이 34.7%로 역대 둘째로 높았던 것은 이번 대선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을 보여준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마지막 유세에서 "이번 대선은 내란 극복을 위해 하는 선거"라며 "지금 급한 것이 민생과 경제 회복"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거짓과 부패 없는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며 "총통 독재의 출현을 막아달라"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미래를 위한 보수 진영의 시드머니로 저에게 한 표를 달라"고 했다.

이번 대선 역시 미래와 정책은 안 보이고 막말과 비방전으로 얼룩졌다. 공약집만 해도 민주당은 사전 투표 하루 전인 지난 28일, 국민의힘도 사흘 전인 26일에서야 냈다. 역대 대선 중 가장 늦었다. 3차례 후보 간 TV 토론은 상대를 공개 비난하는 자리가 됐다. 진영 간 고소·고발전도 격화됐다.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혼탁했다. 이재명 후보는 정치 보복을 안 하겠다고 여러 번 약속했지만 '내란 종사자가 정부에 많이 숨어 있다'며 특검을 해야 한다고 했다. 김문수 후보는 끝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미온적 태도를 보이며 확실히 선을 긋지 못했다.

지금 우리의 경제와 안보는 모두 벼랑 끝이다.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을 1.5%에서 0.8%로 대폭 낮췄다. 지난 1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 0.2%로 주요국 중 꼴찌 수준이었다. 내수 침체는 오래됐고 경제를 받치던 수출마저 '관세 전쟁' 등으로 위축되고 있다. 국제 정세의 격변도 심각하다. 미국은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경고하며 주한 미군의 역할 변화를 공언하고 있다. 트럼프가 대북 협상용으로 주한 미군 감축을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도 계속 나온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무역 협상을 연계할 가능성도 크다. 북한이 러시아의 무기 기술을 넘겨받은 것도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국내외 유례없는 위기가 코앞인데 우리끼리 싸우고 있을 수는 없다. 이번 대선은 12·3 계엄 이후 혼란을 극복하고 극단으로 갈라진 국민을 통합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누구를 찍든 이 바람만은 모두가 같을 것이다.

대미·대중 수출 8% 급감 충격

5월 수출이 1년 전보다 1.3% 감소했다. 양대 수출 시장인 미국·중국에 대한 수출은 8% 이상씩 급감했다. 1위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5월 기준 역대 최대인데도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을 그저 연휴로 조업 일수가 적었던 탓으로 돌릴 수만은 없다. 중국 제조업이 글로벌 시장을 급속히 잠식해가는 가운데 한국은 미국발 관세 충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구조적 이유가 더 크기 때문이다.

수출 부진은 한국 경제가 직면한 위기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15대 수출 품목 중 10종, 10대 수출 품목 가운데 7종의 실적이 다 감소했다. 미국 수출이 막힌 중국산 석유화학, 철강 제품이 세계 시장에 쏟아지면서 한국 제품 수출 판로 자체가 막히고 있다. 지난달 대미 수출은 관세 폭탄의 직격탄을 맞은 자동차의 수출 부진으로 1년 전 대비 8.1% 감소했다. 대중 수출 역시 반도체와 석유화학의 수출 부진으로 8.4% 감소했다.

교역 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미·중 통상 전쟁 등의 여파로 올해 세계 상품 교역량이 0.2%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우리나라 수출은 2.1% 감소하고, 특히 자동차 수출은 8%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수출이 성장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는데 수출마저 부진하면 0%대 성장을 면한 길이 없다. 한국은행은 올해 0.8% 성장을 예상했지만, 해외 금융기관 중에는 0.3% 성장의 비관적 전망을 내놓은 곳까지 있다.

종잡을 수 없는 관세 정책을 펴고 있는 트럼프는 갑자기 외국산 철강에 50%라는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3월 25% 관세를 부과한 지 2개월여 만에 두 배로 올리겠다고 한다. 한국 철강 수출에서 미국 시장은 금액으로 1위(점유율 12.4%), 물량으로 3위(9.8%)다. 중국산 저가 철강의 범람, 국내 건설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 산업에 또 악재가 생겼다. 새 정부가 취임하면 미국과 적극적 관세 협상을 통해 동맹국인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이 피해를 덜 입도록 협상 역량을 발휘하는 데 총력전을 펴야 한다. 경제가 벼랑 끝이다.

유니콘 33곳 만든 中 칭화대, 韓은 영재高도 외면

이공계 수재들이 가는 전국 영재고의 2026학년도 지원자 수가 전년 대비 4% 줄어, 5년 이래 최저를 기록했다. 최상위권 학생의 의대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수치다. 영재 학교는 교과 과정이 대학 입시와 거리가 멀어 의대 진학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대선 주자들이 '100조원 투자' 등을 내세우며 인공지능(AI) 육성을 외치고 있지만, 과학기술 인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헛된 꿈에 불과하다. 저비용 고효율의 인공지능 '딥시크'를 비롯, 최고 성능의 전기차,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 드론, 배터리 등으로 세계를 놀라게 하는 중국의 기술 굴기 역시 국가가 전략적으로 키운 이공계 인재들이 인해전술처럼 쏟아지고 있기에 가능했다.

중국은 2015년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경쟁력을 구축하겠다는 '중국 제조 2025' 계획을 수립하면서, '2025년까지 고급 기술 인력 1000만명 양성' 목표를 세우고 치밀한 영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전국 시험을 통해 상위 0.5%를 뽑아내 영재학교로 보내고, 4~5년간 수학·물리·화학을 대학 수준까지 가르쳤다. 칭화대, 베이징대 등 6개 명문 대학이 1200명을 별도로 뽑아 최고 석학에게 이공계 과목을 배우게 했다. 이렇게 길러진 인재들이 대학의 지원 아래 '창업자'로 거듭나고 있다. 칭화대에서만 스타트업이 1000개나 탄생했고, 이 중 33곳은 기업 가치 1조원이 넘는 '유니콘'으로 성장했다. 중국은 매년 과학기술 분야의 박사 8만명, 공학 엔지니어 150만명을 배출하고 있다. 무섭다는 말밖에 할 것이 없다.

우리는 어떤가. AI 인재를 키워야 할 서울대 컴퓨터공학과의 정원을 수도권 규제를 이유로 20년간 55명으로 묶어놓았다. 산업계가 아우성치자 2023년 겨우 25명을 증원해준 것이 고작이었다. 이공계 인재가 의대로만 쏠려, 등록금 면제와 취업을 보장하는 반도체 학과조차 정원을 못 채워 쩔쩔매고 있다. AI·빅데이터·클라우드·나노 등 4대 신기술 분야에서만 6만명의 인력이 부족한데 한국을 떠난 이공계 석박사급 인재가 최근 10년간 9만6000명에 달한다. 서울대 공대 학장이 "이공계 대학생 중 매년 1000명을 뽑아 집중 지원해 초인재로 양성하자"는 제안을 한 것은 거의 절규로 들린다.

이대로 가면 한국 제조업은 모두 경쟁력을 잃고 중국에 뒤처질 것이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새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교육 개혁을 포함해 이공계 인재 양성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한다.

《저질 민주주의 = 중우(衆愚) 정치》 시대

newdaily.co.kr 뉴데일리

대통령 잘못 뽑으면 모든 건 국민 책임

악마 히틀러, 저질 차베스, 괴물 푸틴 선택도 선거
모든 게 선거, 다수결, 머릿수
모든 게 국민 탓, 국민 책임, 자업자득

▲ 1,2,4 번 중 누가 승자가 될까? 모든 건 국민 선택이고 그 책임도 국민 몫이다.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 먹어 봐야 아나?"란 속담이 떠오르는 대선판이다. ⓒ 뉴데일리

남 탓 말라

모든 건 국민 책임이다. 국민은 남에게 책임을 씌우지 말자. 대선 풍경을 바라보며 그걸 새삼 느낀다. 도대체 왜 출마자들이 저렇듯 피를 토하며 호소하고 읍소하고 절규해야 하는가?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감동 주기 위해서라고? 아니, 국민이란 존재가 옛날처럼 70% 이상 문맹도 아닌데 왜 그래야 하는가? 그들은 90% 이상 다 대학 나왔다.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 아닌가?

그들이 여태 출마자 1번이 누구이고 2번이 어떤 인물이고 3번이 어찌 생각하고 4번이 뭘 말하는지 몰라서 그래 줘야만 하는가? 그들이 갓 태어난 아기라서 그렇게 밥을 입속에 넣어 암죽을 만들어 먹여줘야 하는가?

머릿수·떼 다수결, 꼭 옳지만 않다

사람들은 흔히 ***국민은 거룩하고 신성하고 착하기만 하고 무오류(無誤謬)의 무엇인 양*** 추켜세운다. 왜 그래야 하나? 나쁜 정치의 책임이 반반이라면 모르되, 왜 정치인들에게만 있다고 하는가?

국민에게 묻는다.

출마자 1번, 2번, 3번, 4번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는데 그토록 긴 시간 동안의 그토록 미친 것 같은 선거운동이 필요한가? 그래도 아직도 잘 모르겠다며 막판 표심이 어떻고 왔다 갔다 헤매는가? 앞으로 1시간 후엔 또 마음이 어떻게 홱 달라질지 ***"내 마음 나도 몰라"*** 인가?

치워라. 이제 국민 스스로 자기 일 자기가 알아서 해야 한다. 누굴 뽑아줄지 이젠 국민이 알아서 결정하란 말이다.

민주주의가 저질·타락하면?

이 시각까지도 ***《무당파~부평초 인생》***이라고? 그게 말 따위 되는 소리인가? 얼굴만 쓱 봐도, 말 한마디만 휙 들어도, 살아온 방식만 훑어봐도, 저게 어떤 사람인지 알아차려야 하지 않나?

그래도 영 모르겠다고? 치워라, 그런 판단력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왔나?

분명히 해두자. 대학 나온 사람들이 해변의 모래알처럼 흔한 한국 유권자인 한에는, 모든 건 국민 책임이라 해도 과언 아니다. 정치인에게 책임을 몽땅 미루지 말라.

국민이 저질이면, 정치도 저질

어떤 도시에선 갑-을-병-정 모든 선거구에서 일제히 특정 정당 후보들만 국회의원 시켜주었다. 그 당에만 몰표를 주었다는 뜻이다. 그들 중엔 언론에서 ***"저런 나쁜 짓을 했다"***라, 비난받은 자도 있었는데.

이래 놓고 뭐, 모든 건 정치인 책임? 천만에! 국민 책임이다. 6.3 대선에서 누가 되든 그건 잘잘못간에 순전히 국민 책임이다. 자기들이 뽑아놓고 누굴 탓하려?

국민도 잘못하면 탄핵당하는 법은 없을까? 민주주의가 기껏 이런 거였나? ***《저질 민주주의 = 중우(衆愚) 정치》***라더니.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2025년 6월 2일 게재 되었습니다.

NO. 160 뉴데일리 칼럼 프린트 버전 시리즈

뉴데일리 컨텐츠를 지원해주세요 뉴데일리를 아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 신한은행 140-007-880570 뉴데일리(주)